

# ‘예적금 신드롬’...금리 더 오른다

한은 최종금리 3.5~3.75% 예상  
 10월 정기예금 한 달 새 56조 급증  
 올해 들어 187조가 예금으로 몰려  
 수시입출식 예금 등 올해 97조 빠져  
 주식서 돈 빼 예금으로 ‘역머니무브’  
 수신금리 3% 9년 8개월 만에 돌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5% 돌파  
 10억 이상 고액 예금 789조...사상최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대거 몰리는 ‘역(逆)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 단기 대기성 예금과 가계대출은 줄고 있다.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3.5~3.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역머니무브’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정기예금은 전월대비 56조2000억원 급증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정기예금은 올해 들어서만 18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23조원, 요구불예금에서 21조1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단기성 예금에서 44조2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금리가 0.1% 수준에 그쳐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하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은 올해 1~10월 96조8000억원 빠져나갔다.

금리인상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대기성 자금이 넣어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이 투자와 소비에 나서는 대신 은행에 돈을 묶어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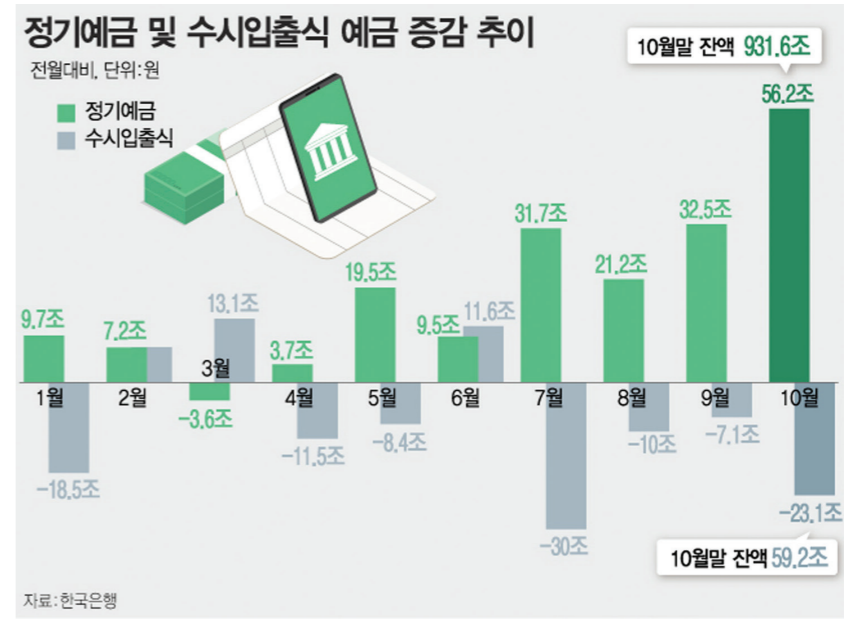
수신금리도 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대비 0.44%포인트 오른 3.38%로 집계됐다. 2013년 1월(3.0%)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또 2012년 7월(3.43%)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금리도 0.44%포인트 상승한 3.35%를 나타내 2013년 1월(3.0%)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2012년 7월(3.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이 이자율을 잇따라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5%를 넘어섰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은 전일 우대금리 포함 1년 만기 기준 최대 5.01%의 이자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금리는 5.0%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4.98%, NH농협은행 ‘NH알츠회전예금 II’는 4.90%, 신한은행 ‘솔직한 정기예금’은 4.85% 수준으로 올라왔다.

돈이 은행에 몰리면서 정기예금 계좌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정기예금과 적금 계좌 규모는 총 1347만5989개에 이른다.

10억 이상 고액 예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 예금 규모는 787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716조2350억원)와 비교하면 71조6800억원(10.0%)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저축성예금 가운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잔액은 72조64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늘었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0조341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6.9% 증가했다. 계좌 수 기준으로 봐도 올 6월 말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 수는 9만4000 계좌로 1년 전(8만4000 계좌) 보다 11.9% 급증했다. 지난해 말(8만9000 계좌)과 비교해도 5.6% 늘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어 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1058조8000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상승, 당국의 대출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10월 1조8000억원 줄었다.

한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이 같은 ‘역머니무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최소 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도 내년 최종금리가 연 3.5~3.7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올려 연말 3.25%가 된 후 내년 1~2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을 빼내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위험자산에서 빼내 예금으로 돌리는 등 ‘역머니 무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자금 몰려올까

예금금리 상승...은행 5%·저축은행 6%대  
 고금리 예금에 수백억 들고 은행 찾기도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에 예금으로 몰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액 자산가들은 100억원 이상의 ‘뭇돈’을 은행 예금에 넣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이 침체하면서 은행 예금으로 풀림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5%대를 돌파했다. 18일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집계하는 은행권 정기예금(12개월) 상품 39개 중 9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5%를 넘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이 연 5.05%로 가장 높다. 이어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연 5.01%,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연 5.00%, 신한은행 ‘솔직한 정기예금’ 연 4.95% 등이다.

우리은행이 13일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5%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자 일주일 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금리도 5%대를 넘어섰다. 신한은행도 5% 턱밑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기업대출 재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연 5%인 예금에 1억원을 1년간 예치하면 연간 이자는 세전 500만원, 세후 423만원이다. 매일 예금 이자로 세전 41만6700원, 세금을 제하면 35만2500원을 받는 셈이다.

은행권에서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들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8일 기준 연 5.51%로 올해 초 2.37%에서 2배 넘게 뛰었다.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는 연 6%대다. 18일 상산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 금리는 연 6.10%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집계하는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다.

이에 고금리 예금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의 제테크 관련 카페에서 예적금 상품 금리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은행 지점을 찾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금리가 오르면서 젊은 고객들도 예금이나 적금 상품 상담을 위해 창구를 찾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들은 10억원, 50억원 단위는 물론이고 수백억원의 시중은행 예금에 넣는다. 일부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으로는 100억원, 200억원의 뭇돈을 들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도 은행으로 모인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향후 6개월 정도는 예금에 돈을 넣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금융 소비자들도 늘어서다.

한 시중은행 강남권 지점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없던 5%대 금리가 적용되자 정기예금으로 향하는 추세”라며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기예금으로 풀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의 ‘역 머니무브’ 흐름은 거세지는 추세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47조원 넘게 늘었다. 9월에도 3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린 것이다.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800조원을 넘어섰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b>김 평 호</b> 편집국장직무대리 <b>서 선 옥</b>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품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